

2001. 봄. 5호

두입술

그대 두입술을 열어 함께 말하라

주마: 여학우 길찾기//자리잡기

연세대학교 '두입술' 편집위원회



오빠

문정의

이제부터 세상의 남자들을
모두 오빠라 부르기로 했다.

집안에서 용돈을 제일 많이 쓰고
유산도 고스란히 제 몫으로 차지한
우리 집의 아들들만 오빠가 아니다.

오빠!
이 자지러질 듯 상큼하고 튼튼한 이름을
이제 모든 남자를 향해
다정히 불러 주기로 했다.

오빠라는 말로 한방 먹이면
어느 남자인들 가벼이 무너지지 않으리
꽃이 되지 않으리

모처럼 물안개 겹쳐
길도 하늘도 보이기 시작한
봄호의 기념으로



세상 남자들을
이제 모두 나의 오빠가 되었다.

나를 어지럽히던 그 거칠던 숨소리
으쓱거리며 휘파람을 불어 주던 그 현신을
어찌 오빠라 불러 주지 않을 수 있으랴

오빠라 불러지고 싶어 안달이던
그 마음을
어찌 나물 캐듯 캐내어 주지 않을 수 있으랴

오빠! 이렇게 불러 주고 나면
세상엔 모든 짐승이 사라지고
혈떡임이 사라지고

오히려 두툼한 지갑을 송두리째 들고 와
비단 구두 사 주고 싶어 가슴 설레는
오빠들이 사방에 있음을
나 이제... 용케도 알아 버렸다.



두입술

테마: 여학우, 길찾기 / 자리잡기

I. 날아라 새내기

〈이야기들〉 새로 쓰는 새내기 일기

- 4 미쓰새내기선발대회 / 이갈
신촌의 달밤 / 풀기 7
- 10 오빠의 얼굴 / 답다디답
RIGHT NOW! / 풀기 13
- 16 지킬것은 지킨다 / 마나
- 18 〈분석글〉 여자새내기들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 뜬금

II. 사라지거나 혹은 나쁘거나

〈수기 1〉 숨은 여선배 찾기

- 26 형수님 선배되기! / 참외
가깝고도 먼 과방 / 짱가 28

〈수기 2〉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32 여자친구와 화해하기 / 시타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 토랑 35
- 38 그, 그녀, 그리고... / 이음

〈분석글〉 연세에 여성을 어(許)하라 / 짱가 42

- 47 〈쉬어가기〉 토랑의 황당 but 화통 상담 코우너~

<정보소개> 알아서 남주자! 48



두입술을 열며....

이 기획은 애초에 새내기 특별호로 출발했다. 고백하건대, 처음 생각에는 이번 기획이 아주 쉬운 것 같았다. '새내기에겐 어려워도 우리는 진부하도록 익숙하니까' 편하게 기획하고 가볍게 편집할 수 있을 거라 여겼다.

그러나 기획회의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인정해야 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이라고 이젠 다 알았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 그 때, 우리가 새내기 때 헛갈리고 불편하던 경험들은 지금도 끈끈하게 굳어져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종을 때를 누리고 있는 새내기와 조금씩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여자선배. 그 달라 보이는 모습에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돌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과 나 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확실했으니까.

결국, 이 책은 새내기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여학우 모두를 위한 책이 되었다. 이 책은 새내기에 하고 싶은 말이자,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선배들에게 함께 하고 싶은 말이다. 이 책을 새내기와 선배가 함께 읽었음 좋겠다. 지금 이것은 우리의 말이지만, 더 나아가 새내기들과 선배들 사이,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의 말로 이어졌음 좋겠다. 선배들과 선배들 혹은 새내기와 새내기 사이에서도 물포가 트였음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더 행복했음 좋겠다.

편집장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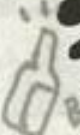
2001 봄 · 5호

두입술

그대 두입술을 열어 함께 말하라

"그대들의 입술을 열아라. 그러나 그것들을 단순히 그냥 열지는 말아라. 우리, 다시 말해 너/나는 열려 있지도 닫혀 있지도 않다. 우리의 입술 즉 너의 입술과 나의 입술 사이에서는 몇 개의 목소리들, 몇 가지의 말하는 방식들이 이리저리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우리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 밖을 향해 있고, 밖에 있으면서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통로. 우리들 사이의 통로는 무한하다. 끝이 없는. 어떠한 매듭도 고리도 어떠한 입도 우리의 소통을 멈출 수 없다. 우리들 사이에 있는 집은 벽이 없다..."

연세대학교 『두입술』 편집위원회

MEMO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아라 새내기  Beer Soju Whisky 기타	4	5	6 동아리 활동하기
	11	12	13
	18	19	20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앞길에 두려 하지 말고 그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서정은님의 시 <사랑한다는 것으로>에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입학식 (인형 meet 동동리방)	3
7	8	9 개강 party	10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14	15	16	17 meeting 별대별대 국하하하하하 b사계기동하
휴학 - 복학 접수비금			
21	22	23	24
hiphop party Hiphop party 여제네방. all night!			
28	29	30 M-T	31
이야기들 - 새로 쓰는 새내기 일기 분석글 - 여자새내기는 어떻게 사라지는가 report.			

미쓰새내기선발대회

사회자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합격증 배부일 맛이 미쓰새내기 선발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미쓰새내기 대회는 수년간 새내기 본인들과의 합의 없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대회로, 매년 이맘 때 남자선배들 사이에서 엄청난 청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회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위원을 맡아 줄 잘글라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글라씨는 지난 2년간 미쓰새내기 대회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글라씨

잘글라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잘글라씨, 오늘 미쓰새내기 대회 후보 명단부터 소개해 주시죠.

잘글라 네, 이번 미쓰 새내기 대회는 예년보다 많은 후보들이 보이고 있어요. 현재 명단만으로 예상되는 후보가 전체 새내기 중 약 50%!! 50%나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죠. 네네

사회자 사실 저희가 명단만으로 후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한 후보 숫자는 알기 힘들지 않습니까?

잘글라 그렇습니다. 사실 숨어 있는 복병들, 즉 수민이라든가 정민이 같은 이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불리 판단하기가 힘들죠. 뭐 물론, 이름은 지훈이었는데 알고보니 여자여서 심사할 맛이나게 하는 새나기도 종종 있지만요. 하하~ 아무튼 그 함정을 잘 파악해 내는 것이 훌륭한 심사위원의 자격입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거의 100%에 이르는 적중률을 하하하

사회자 네, 또 하나, 이름은 예쁜데 실제 얼굴은 영 아닌 경우도 있어 그것이 걱정스럽군요. 뭐 예상 외의 다크호스도 있습니다만.. or 아 네! 말씀드리는 사이 첫번째 후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안타깝습니다. 남자 새나기였네요. 아, 이거 첫번째 후보부터 남자라니 출발이 안 좋은데요.



잘글라 네, 뭐 아직 많은 후보들이 남아 있으니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해에 한 명이라도 재능 있는 미쓰새나기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자 네, 다음 후보 들어옵니다. 아~ 여학생입니다.

잘글라 아~ 저 후보! 지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자알~만 훈련시킨다면 아주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잠재된 끼가 눈에 보이네요.

사회자 네, 사실 저 후보 아직 부족한 게 많기는 합니다만...

잘글라 허허 긴 생머리였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뭐 아직 분장도 미숙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야 점차 고쳐나기만 되지요. 또 한편으로는 새나기 시절에는 저 후보처럼 화장하지 않은 것이 더 청순해 보이고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자 네, 다음 후보 보시죠. 예, 저 후보 아주 좋은데요.

잘글라 그렇군요. 치마 길이도 적당하구요, 화장도 요즘 유행하는 누드 메이크업으로 아주 잘 했네요. 옛날 새나기의 모습을 잘 연출한 화장! 저 후보 점수 올라갑니다.

사회자 수능 끝나고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 그런데...저 옆에 살짝 보이는 남자는 누구죠? 아, 이런.. 남자친구! 이미 코치가 있었습니다.

잘글라 아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훌륭한 후보를 뒤편에는 이미 코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자 저희 과에도 유능한 코치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렇게 외부에서 코치를 만나면 과내에서의 활동이 부진한 경우가 많죠.

잘글라 할 수 없죠. 뭐, 그리고 과 내에서 많은 코치들을 만나다보면 저 후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골프선수 박세리도 코치 바꾸고 그러잖아요? 골키퍼 있다고 골 안들어가는거 아니죠. 지금 이 방송 청취하는 남학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하

사회자 다음...지금 들어오는 후보가 나팔녀 후보인데요. 예상보다 성적 좋습니다. 기대 밖의 선전이네요.



- 작가** 저 정도면 평균 이상은 되지요? 늦어도 4월내로 전담 코치가 생기겠군요.
- 사회자** 아...네 뭐라고 말할? 그 다음 말이 뭘까요? 혹시 오빠? 아~ '오' 리엔테이션에 관한 질문이었네요. 아쉽습니다. 오빠라는 말이 나왔으면 점수는 거저 먹고 들어가는건데 말이죠.
- 작가** 사실 합격증 받는 날부터 자연스럽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면 거의 점수 만점이 되는거죠. 네.
- 사회자** 아! 지금 저 선수가 누구니까? 박..박삼돌 후보 맞습니까? 박삼돌 후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네요! 지금 시각 1시 45분! 미쓰새내기 대회 개최 이후 가장 훌륭한 후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박삼돌 후보. 아 정말 예상밖이네요.
- 작가** 저 후보가 몇 반이죠? 아, 5반이군요. 안타깝습니다. 이번 새터는 반별로 조를 편하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로 데려올 수 있었는데요.
- 사회자** 그렇습...아, 저 후보 말고 우리반 새내기 중에 고소영을 달은 새내기가 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 후보에게 기대를 걸어 보죠.
- 그럼 이쯤해서 작년도 미쓰새내기 대회에서 1위의 영광을 차지했던 000양의 고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000양 이미 과에서 모습을 감추어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군요. 미쓰새내기의 자리를 물려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요. 예년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고 말았네요. 안타깝습니다.
- 작가** 오늘 미쓰새내기 선발대회, 저는 있는 후보들 많이 나왔네요. 이번 새터 기간 내에 모든 남학생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좋은 새내기들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사회자** 네! 그럼 박삼돌후보가 올해의 미쓰새내기에 선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년 합격증 배부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갈(2gal@dreamwiz.com)

신촌의 달밤

"안녕하세요. 전 01학번 000이구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떨리는 두 팔로 무거운 3천 피치를 들고 맥주를 가득 따라준다. "자, 너도 한잔해"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술을 받는다. 한 손으로 받아도 된다는 성화에 왼손은 슬그머니 내려보지만 웬지 뻔뻔하다. 나는 이제 어느덧 '주도'를 익혀가고 있다. 무심결에 잘 부탁한다고는 말했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부탁하다니, 무얼? 이 바보. '천공이요? 불문 할 거 같아요. 아직은 잘...' '집은, 마포요' 출신고교와 희망전공, 사는 동네는 오늘날 벌써 몇 번을 말했는지...

오늘은 휴가 나온 99선배도 있고 해서 점사점사 모인 거라는데, 아마도 군복 입은 저 사람인가보지... 어어? 이리로 오잖아. "나는 99학번이구 태영이라고 해. 반갑다." "안녕하세요. 저는 01학번 000이구요." 소개, 또 소개...그래도 FM 안 시키는 게 어디야? 선배는 교회 초코파이의 죽이는 맛과 막사 천정을 치솟는 평풍의 인기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렇게 술마시는 우리는 행복한 거라고 했다. TV에서만 보던 군인을 가까이서 보니,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어 신기하기도 하다. 그런데 둘러보니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뿐이다. 하나 둘 태영선배로부터 멀어지더니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었다. 혼자서 대면하고 있기가 어딘지 민망하다. 태영선배는 남은 맥주를 혼자서 뭉뚱 들이킨다.

휴가 나온 태영선배 술잔에 빔석오빠가 술을 따르려고 하자, "야, 난 너 싫어. 난 예쁜 새내기가 따라주는 술 먹구 싶었던 말이야." 어, 왜 다들 날 쳐다보지? 나보고 따르라는 건가? 내 두 손은 어느새 피쳐 손잡이를 쥐고 있다. 엄청난 학습능력이다. 이번엔 팔은 안 떨리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벌겍지? 허걱! 술이 넘쳤잖아! 어, 휴지, 휴지... 아이, 쪽팔리게서... 바지에 흘렸잖아, 옷에서 술냄새 많이 나면, 엄마가 뭐라 그럴 텐데... "아! 사랑이 넘친다. 넘쳐, 누구는 좋겠네. 군바리 가슴설레서 잠 못 자겠네." 뭐라고??? 사랑? 어느새 나도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다.

사람들은 아한 얘기들을 하나둘 늘어놓기 시작하고, 한마디씩 토를 달며 웃어댄다. 가끔씩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피쳐는 하나 둘씩 다시 채워지고, 소주병도 서서히 나뉘어 다니기 시작한다. "야, 나네, 쏘도 인근에서 잘 잡히는 고기가 뭘지 알아? 오르가자미래, 오르가자미" 까르르... "글구 쏘도엔 유명한 바위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자궁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유방암." 깔깔깔, 우하하... 호호... 웃긴다. 근데 얼마전

구가 음방업이라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다는데... 후우... 그러고 보면 웃을 일은 아니지...

중혼 선배는 잠시라도 절정해줄세라, 369를 하자고 성화다. 술자리의 클라이막스는 게임이라나... 으... 난 게임 못하는데... 뭐라구? 별책이 소주 원샷이라구? 으~ 안돼. 자리를 떠나 하나? 하지만 어느새... "삼육구 삼육구 일! 이! 짹! 사! 오!" 아이구 겨우 넘겼네... 다행이다. 어? 효원이가 걸렸잖아. 우아, 저 기집에 원샷하네. 정말 다들 원샷할 분위기인데, 어찌지? "일! 이! 짹! 사! ... 짹! 짹! 싹일!" 어, 이번엔 나잖아. "박" "우하하... 3.6.9가 들어갔을 때 박수라니까. 얼른 마셔라..." "아, 불쌍하다. 한번만 봐줘라... 그래두 새내긴데..." "아니야. 봐주기 없어! 원샷! 원샷!" 그래그래, 틀렸으면 마셔야지. 괜히 어디다구 봐주는 거 싫어! 효원도 마셨는데... 푸울릭! "와와... 와와..." 으으 쓰다... "삼육구 삼육구..." "육! 또 걸렸잖아. 오아. 나 정말 바보! 게임치! 어떡해... 벌써 올라오는 걸, 가득 채워진 소주잔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만다. "야야, 흑기사 불러도 돼." 뭐? 대신 마셔줄 사람 고르라구? 어어? 어느새 중혼선배가 내 술을



마시고 있잖아. 후우... 다행이다. 뭐!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고? 오빠들은 "아한거! 아한 거!" 를 외치고 있다. 아니 여자애들까지 같이 박수를 치고 있잖아. 너무해. 도대체 어쩌면 좋지? 설마 정말로 아한 소원을 부르진 않겠지? 중혼선배 왈, "아한 거 필요없구 그냥 내 옆에 앉아." 어찌지? 가야 되냐? 그나마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영당이가 떨어지지 않아. 나도 모르게 인상이 썩그러진다. 당황해서 울음이 나올 것만 같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져버리고... 난 바닥을 바라보고 있지만, 고개 숙인 나의 머리꼭지에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느껴진다. "차차, 이번엔 다시 지은이부터 시작해." "삼육구, 삼육구..."

난 살짝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간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다. 대학가면 없어진다던 여드름들이 마구 발긋거린다. 소주 때문인지 눈



까지 충혈됐다. 술냄새가 머리 끝끝을 뱅글거린다. 이제 집에 가볼까? 불일보고 나온 윤희, 너 아까 중혼 선배 때문에 당했구나. 좀 있으면 2차 간다니까, 나갈 때 우린 같이 지하철 타고 가자. 어차피 지금 간다 그러면 순순히 보내주지도 않을걸..."

나는 게임을 하지 않는 테이블로 가서, 핸드폰 액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다. 벌써 10시 반, 선배들은 회비를 걷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가방을 챙겨 들고 하나 둘 일어선다. 2차는 겹대기 집이란다. 술집 앞 길거리에 우리 일행 스무 명 정도가 서 있고, 선배들을 쫓아 새내기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나도 한번 따라해 볼까 싶지만 몸도 피곤한 데다, 제대로 외우지도 못해서 뒤로 물러났다. 어? 동준이가 아카라카를 띄우고 있잖아... 짹식. 제법인데, 신촌 밤거리에 올리는 우렁찬 목소리들. 그런데 여자선배들은 응원은 안 하고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 하긴 좀 민망하긴 하다. 댕정신에 혼자서는 절대 못하잖... 이번엔 마초맨? "언니, 근데 마초맨이 무슨 뜻이예요?...?" 언니들 서로 마주보며 잠시 쓴웃음을 짓더니, "정력강한 남자... 제네들, 응원은 저거밖에 할 게 없나? 정력강한 남자라구??? 그렇다면 오빠들도, 동준이도 다들 정력남?"

나와 윤희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인사하고 빠져 나와, 전걸음으로 지하철역 쪽을 향한다. 늦을 지도 몰라. "야, 우리 뭐자!" 달리기 시작하니, 다리가 휘청이며 어지럽다. 시야가 흐려진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들과 간판들 사이로, 옆에 와 앉으려던 중혼선배의 얼굴이 겹쳐진다. 마초맨을 부르는 굵고 우렁찬 목소리들, 치밀어 오는 소주냄새... 밤이면 더욱 불씨는 사람들... 속이 울렁인다. 얼른 이곳을 떠나자. 뭐자. 뭐자. 그런데! 갑자기 낯 남자가 쫓아와서 얼굴을 더민다. "여기 나이트 안 가실래요? 부킹. 부킹 최고로 모십니다."

물기(rebirth0@dreamwiz.com)

오빠의 얼굴

~ 어쩔밤 꿈 속에 나는 나는 날개 달고 구름 보다 더 높이~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오빠의 얼굴~ //

아~ 피곤하다. 도대체 몇 시간이나 잔 거야? 아우~ 어제 먹은 술이 덜 깬나 보네. 머리도 아프구... 하긴 어제는 좀 많이 마셨지. 신입생들 들어왔다고 괜히 다들 기분 들며 가지고는. 하긴 맨날 보던 얼굴만 보다가 뉴페이스가 들어오니 그럴 만도 하지. 뭐, 내 후배라고 생각하니 귀엽게 보이더라. 히히, 후배라... 잘해줘야지. 아~ 그렇게 자고도 또 졸리냐. 일...어...나...야... 음...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저기 병태잖아. 야, 병태야! '병태 오빠!' 어라? 말이 왜 헛나오지? 오빠라니 "오~, 은경아" 애가 오늘따라 왜 이리 친한 척을 하나. 밥을 네가 사준다고? 뭘 일이야? 어? 그리고 보니, 병태 뒤에 있는 저 여자 애들은 다 뭐람? "은경아 안녕?" "잉?? 보아하니 신입생 같은데, 날 지들 친구처럼 대하구 있어. "은경아, 가자. 오빠가 밥 사줄게" 음...바...옥! 이, 이게 어떻게 된거야! 나 신입생 된 거야? 허걱!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쨌거나 사준다니 먹어야지. 이 녀석, 절대 나한테 밥 사주는 놈이 아닌데, 신입생이라니까 그렇게 사주고 싶은가 보군. 근데 같이 먹자고 했으면 애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 침묵 너무 싫다. 으, 소환돼. 어! 이제 무슨 말 좀 하려나 보군.
아, 아이구 이 녀석 얘기하는 것 좀 들어봐. "야, 대학에선 줄



임말을 많이 써. 이런 거 알아줘야 말이 통한다구. 사회과학대는 사과대, 중앙도서관은 중도라고들 하지" "아, 그렇구나" 셋. 저런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야! 작년에 현이 선배가 했던 농담을 그대로 써 먹고 있잖아. 바보... 신입생들 앞에서 뭔가 있어 보이는 선배가 되고 싶은 마음이야 내 알겠지만, 쫓쫓 그렇게 할 얘기가 없더냐. 하긴 나도 1학년 땐 저런 얘기 참 잘못 들었었지.

아~ 수업 끝났다!! 이제 뭐할까? 아, 오늘 개강 파티겠지. 그래, 술이나 먹으러 가자!! 역시나 '성공세대'로 가는군. 어 저기 형석이 오빠네. "야~ 반갑다. 넌 이름이 뭐니? 은경이... 이름이 예쁘네, 응?" 아우~ 느껴해. "말로만 듣던 01학번이 들어올 줄이야. 내가 대학 들어왔을 때 애들은 이제 중학생이었다는 거 아냐. 은경이, 오빠랑 언제 밥 한번 먹어야지!" 찢. 형석이 오빠는 꼭 3월에만 나타나서 신입생들 찢르고 다니면서... 올해도 여전하시군. 그전 그렁구 언니들은 하나두 안 보이네. 그래도 두세 명은 올텐데...아! 민경언니 온다.....

함~ 지루해. 벌써 11시 30분이잖아. 애구, 영양가없는 얘기나 실컷 듣고 앉아 있으려니 좀 이 썩서 죽겠네. 신입생 두 번 하려니 참 힘들다. 힘들어. 음, 이제 술을 파장나는 분위기군. 그만 집애나 가야겠다. "야야, 새대기가 벌써 일어나면 안되지. 늦으면 오빠가 데려다 줄테니까 걱정마. 앉아. 앉아" 아이구 참, 오늘따라 이 사람들이 왜이리 잠나? 평소엔 신경도 안쓰다가, 신입생이라니까 그렇게 잘해주고 싶은 거유? "부모님 때문에 그래? 오빠가 집에 전화 해 줄게. 응?" 아이구 참, 우리 집에 전화는 왜... 가만, 나 1학년 때도 오빠들이랍시고 전화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군...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그랬던가? 지금 생각하니 웃음만 나온다. 아무튼 일어나야지.

뭐? 시간도 늦었는데 새대기들 데려다 주라구? 그래, 새대기 때는 데려다주기도 하고 그러지. 그나저나 민경언니 또 혼자 가네. 언니네 동네에 골목길이 얼마나 어두운데. "은경이는 집

이 어디였지? 어, 아현동. 그래 같이 가자" 옹? 지태 이 녀석 집은 방화동인데, 날 데려다주고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이게 잘해주는 건지, 참... 아무튼 신입생 시절 이후로 이런 일 처음이군. "아이구 좋겠네. 저러다가 오빠가 아파되는 거 아냐?" 병태 저 놈 뭐라는 거야!

어, 저 버스 타야 하는데. 아유~ 놓치겠네. 택시 타고 가자구? 이 녀석 장난 아니네. 그래 나야 편하게 가면 좋지. 돈도 니가 낼게 아냐. 암~ 졸린다. "오빠가 1학년 때는.... 은경아!" 어! 아이구 졸았네. 신입생보고 하는 멘트들은 어제 이리 똑같나. 그렇게 지루한 얘기하는데 내가 안 졸고 배기냐, 이 놈아. "은경아, 잘 들어가. 이따가 오빠가 전화할게" 예구, 어른스러운 척하는 저 말투, 표정... 내 녀를 모르냐. 신입생 앞에선 왜 다들 이렇게 섹스가 되고 싶은 거냐. 근데 참 너는 방화동까지 어떻게 갈래? "오빠는 친구 집 가서 자도 돼. 니가 잘 들어갔으면 됐지 뭐..." 예그그, 신입생 하기도 힘들구나.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속도 안 좋구. 아이구 자야지... 삐리리리!!! 예고 댜 전화 "여보세요? 지태 오빠?"



"지태 오빠... 여보세요" 헉!! 아~꿈이었구나. 다행이다... 참, 기분 찼찼한 꿈이로군.

답다디답 (dammy@dreamwiz.com)

RIGHT NOW!



삐리리리~삐리리리~삐리리리~

"여, 여보세요?" "나, 혜진이. 너, 지금 일어나거냐?" "몇 시야? ...어제 술을 좀 마셨더니..." "벌써 두 시 다 됐어. 오늘 미팅 있는 거 깜박한 거 아니지?" 그렇다. 오늘 미팅 약속이 있었다. "이따 다섯 시에 독다방이야. 개네 그래도 꽤 세근하대. 어지간히 놀 줄도 알고" "....." "너!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얼른 잠 좀 깨. 또 자려고 그러지?" "....." "오늘 같은 기회가 어디 많은 줄 알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알았어, 간제. 다섯시?" "너, 뽕꾸내면 정말!" "알았다니까..." "너, 이쁘게 하고 나와야 된다." "기집애... 이따 봐."

난 다시 침대에 널부러진다. 어제 마신 소주 때문인지 머리가 심하게 지끈거린다. 그래도 잘 만큼 잤으니 이제 일어나야지. 오늘은 토요일. 저녁에 신촌에서 우리 학교 공대 남 자애들이랑 2대 2로 미팅을 하기로 했었다. 조금은 망설였지만, 혜진이의 몇 마디 설득에 난 그만 승낙하고 말았다. "미팅이 꼭 그 애랑 잘 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구. 잘 안돼도 하루 재밌게 노는 게 어디야? 1학년 때 아니면 미팅할 기회도 없다더라. 예." 그래, 한번 해보는 거지. 다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어른인데, 하루 저녁 모르는 남자애들 만나서 노는 것도 나쁘지 않지. 게다가 오늘은 토요일 저녁인데.... TV나 보고 있느니...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샤워부터 해야겠다.

많이 자서 그런가. 얼굴이 약간 부었다. 스킨을 착착 바르고... 난 화장한 얼굴이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는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미팅인데 오늘은 화장 한번 해볼까나? 난 사실 웬만한 화장품은 다 갖추고 있다. 엄마가 대학 들어오면서 사준 것들. 엄마도 참 웃기지. 공부에 방해된다고 귀도 못 뚫게 할 땐 언제고 대학 불기가 바쁘게, 이제 필요하

지 않겠냐며 화장품을 엄청나게 사주었다. 남자친구가 생기기를 온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엄마 자신은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창 때'를 즐기길 바라는 것 같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가서 연애하는 상상을 참 많이도 했었다. 캠퍼스에서 연인과 거닐기도 하고, 도서관에 자리 맡아두고 함께 공부하고... 웬지 5월의 푸르른 캠퍼스에선 연애도 특별한 것 같았다. 실제로도 누구 누구가 사귀다느니, 깨졌다느니 하는 얘기가 무성한 걸 보아하니, 대학에 연애가 넘쳐나는 건 사실인가 보다. 하긴 중 고등학교 때 입시로 짹짹 씹는데다 취업하려면 고생에 또 고생일텐데, 청춘은 지금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젊음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는 걸까?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하던 애들도 많다. 만남에서 이별까지 내가 생전 못해본 경험을 벌써 한 차례 치러 본 그 애들은, 이전에 별로 친하지 않던 사이라도 남자친구 사귀는 얘기 할 때만큼은 통하는 게 있는 것 마냥 신나서 야단들이다. 그럴 때 혼자서 가만히 듣고 있자면, 정말 내가 어딘가 모자라기도 한 기분이다. 지은이도 종민오빠가 대신했다더니, 얼마 전부터 연락도 뜸하다. 후우. 나만 이게 뭐지? 썩 예쁘지 않아도 다들 연애 잘만 하던데, 그치만 연애가 어디 말처럼 쉬워야지. 맘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건 남자들이 싫어한다고들 한다. 아무리 사귀고 싶어도 '먼저 사귀자는 말을 하지는 않되, 남자의 입에서 사귀자는 말이 나오게 하라.' 이쯤 되면 거의 묘기요, 작전이다. 그렇다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 지 모르는 그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자애들이 좋아한다는 스타일로 입고서 백양로를 누비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아이구. 코 옆에 뽀루지가 났잖아. 후우... 지금 팔 수도 없고, 파우더로 가려야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뼘뼘하던 나인데... 또래 남자애들이라면 우습게 알던 내가, 이렇게 연애로 골머리를 앓게 될 줄이야. 대학 와서 하고 싶었던 게 연애만은 아니



었어. 물론이지. 공부에 치여서 뭔가에 관심이 생겨도 미뤄두곤 했던 것들, 대학 오면 다 해보겠다고 다짐했었다. 함께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학교에서 아니면 힘들 일도 한번 벌여보고... 나는 적어도 허구한 날 소개팅 미팅하는 애들과는 다르다고 믿어왔다고. 그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거울 앞에서 분을 토닥이고 있다니! 남자가 내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 말인가? 하지만... 생각해봐, 연애 한번 없는 대학시절은 너무나 건조하잖아. 여자들은 학년 올라가서 또래 남자애들 군대 가면, 연하 아니고서야 연애할 대상도 줄어든다는데... 마냥 앉아서, 얼굴 모를 누군가가 나타나 날 구제하리라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 원하는 게 있다면 쟁취해야지.

그나저나 이따 나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한담? 걱정이네. 그래도 혜진이는 미팅 제법 해본 모양이니까, 괜찮겠지? 마스크라도 한번 해볼까? 혹시 또 알아? 오늘이 운명의 그 첫 만남이 될지... 어, 이거 좀 어색한걸. 파우더도 너무 많이 발랐나봐. 지워버릴까? 헉. 벌써 3시 반이잖아. 그럴 시간도 없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한결 화사해 보이는 걸. 후후. 이려고 거울 앞에 서있으니, 꼭 봄바람 난 새색시 같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예구,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이제 정말 나가야 돼. 오늘은 목격한 책들은 빼놓고 가뿐하게 핸드백만 들고 나가야지. 웬지... 예감이 좋아. 그래, 오늘 한번 잘 해보는 거야. 화이팅!

둘기(rebirth0@dreamwiz.com)

지킬것은 지킨다



9시 00분, 술집

아이참, 지금쯤 나가 봐야 하는데... 온경이 애는 왜 저금까지 혼자 무개 잡다가 나 갈 때에 맞춰 이렇게 나불대는 거야? 정말, 나 통금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아~ 온경아, 오늘 너무 많이 마신다, 그만 해~" 내가 이래서 일찍들 만나 자고 한 건데... 우썸, 15분이잖아. 대충 하고 내일 얘기하지, 참... "뭐? 어, 듣고 있어, 그래 너 속상한 거 알아, 그럼~"

9시 20분, 신촌의 밤거리

"애들아, 나 먼저 갈게, 아냐, 천천히 있어," 고맙긴 한데, '지금 마시는 거 비우고 같이 일어나' 는 데, 15분은 걸릴 거야. 그런데, 오늘은 길거리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개뼉처럼 많은 거야? 급한 사람 어떻게 뛰라고, 켄장~ 어, 25분이면, 편의점에서 썸 사야지. 썸! 냄새 없애려면 30분은 썸어야 해. 담배 피우지 말 걸 그랬나.

9시 35분, 신촌역

도대체 어떻게 지하철이 늦을 수 있지? 10분만에 왔잖아... 여기서 방이역까지 50분, 갈아타는 데 7분, 운 좋으면 5분. 집까지 걷는 데 13분. 그러니까... 15분 지각. 내일 장민이 생일인데, 이를 연속 자각이라... 미쳤잖군. 아까 온경이 입 뻐기 전에 나올걸.

잠실역에서 버스 타면... 그 버스가 자주 오던가? 안 되면 택시 타지, 뭐. 택시타면... 2600원에서 3000원 돈이 되나? 예구~

10시 05분, 왕십리역

잠실역까지, 여덟 정거장. 아무래도 제시간엔 어려울 것 같애. 우리집은 뭘 믿고 이렇게 먼 거야?



아니, 집이 멀면 통금이라도 없던가. 내가 애야? 우리 파에선 내가 제일 심하잖아. 1시간만 늦춰줘도... 솔직히 10시 반은 좀 너무해. 그 때부터가 시작인데, 나만 가면 그게 뭐야? 나에게는 자유를 달라구! ...10시 12분, 아직 다섯 정거장... 예라~ 모르겠다.

10시 20분, 잠실역 앞 정류장

버스 한번 되게 안 오네. 정류장까지 땀나게 뛰었는데... 이게 땀날 땀하는 것이야? 정훈이 오빠도 새내기면 통금이 엄했대, 그래서, 아예 다음날 저녁에 들어가고, 몇 번 맛고, 이젠 내놔다구. 정말 좋겠다. 나도 눈 딱 감고 해봐? 엄마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 오늘도 잠 안 자고 기다리겠지. 정말이지, 나만 어리게 갈구. 바보 같아. 켄장 벌써 23분이네. 어쩐다?

10시 25분, 택시 안

"방어동여요," 차라리 처음부터 택시 탈걸. 이게 똥 고생이야. 아이, 저 알차, 저거 초보 아냐? 이렇게 행한데, 속도 좀 내서야지. 한 번 막히니까 계속 신호에 걸리잖아. 내가 미쳐... 오아~ 30분이군. 그래, 어차피 늦은 거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자. 어? 2900원... 3000원... 3100원! 3500원밖에 없는데~ "아저씨 급하거든요, 좀 빨리 가주세요!"

10시 35분, 집 앞

"어억 억~" 결국 5분 지각. "다녀왔어요! 어, 유미야! 엄마 아빠는? 오늘 늦어? 뭐야~ 그럼, 언니한테 전화라도 해줬어야지, 내가 얼마나 썸 줄 알아?" 이럴 줄 알았음, 택시 안 타는 건데, 아니, 좀더 오래 있다 오는 건데 그랬어. 이 시간이면 애들 한참 2차 가서 놀고 있을텐데. 지금 다시 나갈까? 에이씨~ 구질 구질해. 나도 빨리 통금 따워 깨부셔야지. 흥, 1년만 지나봐라. 내가 이렇게 사나.

마나(i10zzung@dreamwiz.com)

여자새내기들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돈금(l10zzung@dreamwiz.com)/본지 편집위원

1. 여자새내기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선배들, 특히 처음 새내기를 맞는 2학년 선배들은 새내기에게 절해주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그러나, '새내기에게 절해주기'라고 해봤자, 구체적으로 절해줄 건 별 게 없다. 내가 새내기이던 시절엔 보통 데리고 다니며 밥을 사주었고, 술값도 대신 내주었다. 좀 늦으면 지하결핵까지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잘하면 대학생활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절해줌'들은 남자새내기보다 여자새내기에게 자주 자행된다.¹⁾

여자새내기와 달리 남자새내기들에게 약속을 잡아가며 밥을 사주는 경우는 드물다. 간식이나 밥을 더 잘 사줄 뿐더러, 데려다 주는

일은 여자새내기에게 국한된 일이다. 왜 여자새내기들은 이처럼 꽃대접을 받는 것일까?

꽃을 든 남자: 선배들의 새내기 사랑

왜 새내기에게 절해주는 것일까? 새내기라고 무조건 그렇게 사랑스러울 리는 없다. 새내기가 더 연약하거나 더 가난해서도 아니고, 선배의 돈과 노동력이 넘쳐나서도 아니다. 선배는 새내기들에게 베푼다. '베푼다'는 행위는 베푸는 사람과 베풀을 받는 사람을 전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동등하지 않다. 베푸는 사람 쪽이 훨씬 우월하고, 베풀을 받는 사람은 자연히 열등해진다. 선배들이 베풀어주는 동안, 새내기는 '순진한 어린 것'이다. 새내기는 술담배도 처음일 것이고, 연애나 화장도 처음일 것이고, '내 연세대학교의 아카라카도 처음일 것이다. 새내기들은 아직 뭘

모른다.²⁾

솔직히 말해서, 선배들은 새내기가 처음이기를 예상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자새내기에게엔 더욱 그렇다. 여자새내기들은 성년이면서도 미성년인 위치이며, 낯선 재방감으로 가득 들떠 있지만

주체적으로 삶을 결정하기에는 미숙하다. 방배하는 사람없이 자유롭고, 누군가 필요한 존재. 남성들은 그러한 존재에게 자신의 강함과 원숙함을 마음껏 구사할 수 있다. 이 순간 새내기가 가지고 있는 실재와는 상관없는 '이미지'로서의- 어리숙함과 여성이 만나면서 '진정한' 여자새내기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리고 어스름 새내기가 훨씬 더 사랑받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같은 여자새내기라고 해도 삼수생은 사정이 다르다. 재수생만 해도 같은 새내기로 쳐주지만, 삼수생은 확

실히 새내기가 아니다. 나이와 학번이라는 두 강제가 만나는 충돌이나 어색함이 없다 해도, 남성선배들이 삼수생 여자새내기들을 후배로 예뻐하기엔 그림이 맞지 않는다. 남성선배들을 '오빠'라고 부르기에 그들은 너무 커버렸

다. 조용히 앉아서 안주만 먹다가 순서가 돌아오면 어설픈게 뻑뻑 소리지르며 FM이나 따라할거라는 예상을 깨고, 노련하게 분위기를 띄우는 여자새내기 역시 현역이라 할지라도 약간 외의의 존재이다. 아무래도 그녀는 여자새내기

답지 않다.

결국, 여자새내기에 대한 특별한 사랑은, '후배사랑'과 별 상관없는 '술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여자에 대한 선호에 불과하다.³⁾ 그것은 2, 3, 4학년을 각각 은, 동, 동값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포함된 금값에 지나지 않는다. 과정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여자새내기 품평의



1) 이러한 '차별'은 전통적인 남초집단에서 더욱 심하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이다. 어느 공대에서 수련회를 갔다. 한 조에 여자 한 명이 참가할까한 상태였다. 수련회 기간동안 여자새내기들은 공주처럼 대접받았으며, 여자새내기가 일을 했다가는 같은 조 남자새내기들이 선배들로부터 혼이 났었다고 한다. 이것이 극단적이고 집단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차라리도, 남자새내기보다 여자새내기를 더 심하게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러한 경험을 미리 안다는 게 아무 가치도 없으며, 많은 경우 아예 알아서 뚝뚝 거 하니 있는 행태들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3) '무리가 변태냐? 나는 그냥 애써서 예뻐하는 것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은 대학과 당신 내부에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의 권력각본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렇게 순수하게 아껴주는 마음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자새내기의 정해진 미래에 대해 왜 위생관리의 관심도 없는가?

전통은 남성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확인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⁴⁾

2. 여자선배들은 없다.

여자선배들이 없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다. 가끔씩 대규모 술자리에서 놀으신 학번이 등장하면,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우리는 일제히 기립해 일어나 '뽀뽀뽀뽀 뽀뽀'로 시작되는 전국노래자랑 타이틀송을 부르며 환호했다. 그 선배는 남자였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전해내려 오는 과나 동아리의 '전설', 그 주인공도 죄다 남자였다. 그들은 멋져보였다. 나는 선배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되고 싶었던 선배 중에 여자는, 없었다. 사실, 선배를 직접 만나기 전부터 이미 선배는 남성이었다. '선배'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수필을 읽다가 뒤늦게 그



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걸 부정하고 형이라는 단어를 익혀야 했다.

꽃보다 남자 ; 여자새내기 살아남기

여자새내기들도 선배가 된다. 그리고, 선배들의 관심에서 금방,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 여자새내기들을 예뻐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여자새내기들의 가치는 '어림'에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오랜 시간 마냥 어릴 순 없다. 꽃은 시들고, 새내기들은 더 이상 어리지도 어설프지도 않다. 한 해가 지나면, 선배들은 쉽게 새로운 여자새

'선배'가 여성이었음을 알고 놀란 경험은 비단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80년대, 선배는 '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워지기도 했었다. 선후배관계는 남성들끼리의 관계로 환원된 것이었다. 선후배관계에 편입되기 위해서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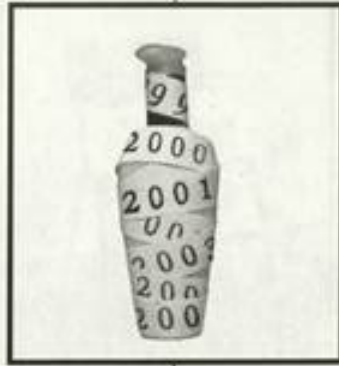
기를 찾는다. 그렇다고, 사랑받는 새내기로서 머물러 선배들의 세계에 끼는 것이 이 막막한 상황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 그 세계는 여자새내기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여자새내기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들은 많은 경우 술자리에서 벌어진다. 술을 주먹개로 이루어지는 대학 놀이문화의 경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술자리 자체가 남성적인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⁵⁾

술을 먹기 싫어하거나 집에 일찍 가려는 행위는 '악한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러한 평가들이 직접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님에도 효과는 만행이다. '악한 모습' 즉,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란 말은 술자리 문화의 마초적인 속성을 드러내준다. 이러한 문화는 여성, 혹은 여성적인 모든 것들을 배제한다. 이

러한 배제가 집단의 '남성성'을 드높이기 때문이다. 술자리에서의 음담패설이 그 좋은 예이다. 성에 대한 이야기와 음담패설은 전혀 다르다. 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다지 아하지도 않은 음담패설은

그 숨은 의도로 사람들을 키득치게 만든다. 음담패설의 재미는 단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나는 어느날 술자리에서, 동기들로부터 아한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아하지도 않은 얘기를 키득거리며 하



는 것이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던 남자동기들은 무척이나 신나서 나의 반응을 살폈고,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그들은 내가 쫓겨라고 예상하고 또 바꿨던 것이다. 술자리에서의 성폭력이 많은 것도, 여성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남성중심 문화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음담패설

4) 이러한 상황은 이성애적인 관계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기에서 '발견'해 본래적인 이성애적 관계로 진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것은 이성애적 관계가, '보호해주는 남성'과 '보호받는 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대학사회에서 역시 별 다를 것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여기에서 '남성적'이라는 표현은 실제 남성과는 특정관련이 없으며, 남성이면 따라야 한다고 우기는 규범과 그로 인해 습득된 무대보 정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신에 대해서는 두말할 3호에서 자세하게 연구된 바 있다. 뒤에 나오는 '여성적'이라는 표현 역시 실제 여성과는 전혀 무관한, 여성이면 마땅히 이러할 것이라고 근거없이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

자체도 언어적 성폭력이지만, 그보다 심각한 성폭력 사건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러한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좋은 오빠' 이던 선배가 저지른 것이다. '오빠'와 '성폭력 가해자', 그 멀어 보이는 다른 모습들은 한 사람 안에서 사이좋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여자 새내기들이 술자리에서의 불편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고 해도, 술자리를 쉽게 떠나기는 어렵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름이 아까울 '술고장'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경험을 함께 했다는 결속력 하나만은 대단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남자새내기는 여자새내기에 비해 후대접받는 것도 아니다. 남자새내기와 여자새내기를 대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다. 남자새내기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보통 대학문화, 특히 술문화에 대한 빠른 적응과 그것을 통한 집단 내의 질서 수호이다. 여자 새내기가



나이를 먹어 그 가치를 잃어가는 동안, 남자 선배들은 상당히 길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가며 그 집단 내의 공식적/비공식적 리더 자리를 이어가곤 한다. 이러한 상황을 눈치 챈 여자새내기들은 웬만하면 그들만의 질서에 끼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그 참여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그렇게 서서히 밀려난 것인지, 아니면 미리 이런 결과를 내다보고 포기한 것인지⁶⁾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집단의 질서 바깥에 있다. 이들이 집단 내에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어도 아웃사이드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하다. 이들의 동기사량은 나라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 수 있었다. 여자선배들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3. 대학이라는 온실에 한날의 희망을?

사회에 나가선 해볼 수 없는 여러 위험한

실험들이 대학에서는 가능하다고 한다. 사회에 나가선 약간 늦어버릴 각종 준비들도 대학에서는 훨씬 쉽다고 한다. 그래서, 흔히 대학을 온실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지금은 그나마 쉽다. 사회에 비하면 대학은 따뜻한 남쪽 나라인 것이다.

사회는 대학보다 훨씬 더 차가운 땅이다. 지금 여자새내기들이 대학에서 받는 귀여움은 사회에서 미스김이 들어오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환해졌어 라는 칭찬으로 업데이트될 것이고, 지금의 소외감은 미스김은

에인 없어? 시집 안 가네? 라는 말로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술자리에서의 음담패설과 성폭력 역시 보다 뚜렷해지고 일상화될 것이다. 사회는 대학과 달리 마음대로 쉬거나 빠질 수도 없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 그런 경험을 겪는다면, 마음 굳게 먹고 상사를 고발할 것인가? 더러운 꼴 보기 싫어 회사를 그만 둘 것인가? 회사를 그만 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도둑놈 치고, 꾸욱 참고 버틸 것인가?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굳게 믿을 근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4년여의

시간은 금방이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생각을 해둬야 한다.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 온갖 상황을 예상해 보고, 각각에 가능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두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될 금지들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경험도 많이 해보아야 한다. 선배들과 함께, 친구들과도 함께 궁리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곳에서 여자새내기와 여자선배의 불편함이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비록 교과서적인 답임에도 불구하고 아쩔 수 없이 유효하다. 오늘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던 새내기, 그대들이 내일의 미스김이 될 것이며, 오늘 여자새내기를 예뻐하던 그 '오빠'가 내일 미스김을 맞는 이대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만 모른 척 해주고 있다면 말이다.

6) 포기라고도 했지만, 나쁜 뜻의 포기는 아니다. 자신이 재미없는 곳이라면 왜 살아남아야 하는가? 오히려 미련없이 새로운 곳과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나설 일이다. 죽음, 매달릴 것에만 매달리지.



나라지거나 혹은 나쁜거나

여자 선배

없다? 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을 뿐.

수기 I - 숨은 여선배찾기

수기 II -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분석글 - 연세에 여성을 허하라

쉬어가기 - 토랑의 황당 but 화통 상담 코우너~

형수님 선배되기!

참외 (babo2gal@freechal.com)

나는 요즘 과 선배로 만난 남자 친구와 '헤어지면 어떨까?...' 생각 중이다. 그리고 사정상 과 학생회 활동을 잠시 접게 될 것 같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일의 시기가 맞아 떨어져 버렸다. 보통 과 CC들이 깨지면 어느 하나는 과를 떠나곤 한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이 여자이다. 내가 만약 이 곳을 떠나게 된다면, 과연 나는 '헤어하려고 과에 남아 있었던 선배'라는 화살을 피할 수 있을까?...

1. 나는 선배가 되고 싶었다

나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과에서 만났다. 하기 좋은 말로 CC, 내가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으니 우리는 연상-연하 커플이기도 하다. 2년이 가깝도록 연애를 했지만 우리는 한바탕 불탄 한 겨울에도 학교에서 손잡고 다닌 적이 없다. 내가 '00의 여자친구'가 아닌 '선배'가 되기 위해서... 나의 남자친구는 과의 부회장. 나는 문자 그대로라면 영향없는 '과대 애인'이었던 것이다. 나는 수업을 같이 듣고 밥을 같이 먹고 한 여름에 딸기 날 만큼 붙어 다닐 수 있는 CC의 좋은 점을 포기해서라도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고 싶었다. 나는 그렇게 선배가 되기로 했다.

2. 나는 이렇게 선배가 되어 갔다

친구 하나가 CC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도 과방에 계속 잘 나왔다. 처음에 그녀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씩씩해 보였는지... 그녀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 '연애나 하러 과에 나온 한심한 애'라는 소리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녀가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얼마 안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이 술안주가 되었다.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나는 어떤 행보를 택해야 할지 고민을 무척이나 많이 하게 하는 일이었다. 어디로 가야할지... 그녀에게도 나에게도 슬픈 시간이었다.

또 다른 친구 하나. 밤 새워 술을 마시던 우이동 엠티에서 나의 친구는 게임 벌칙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배의 애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그 친구는 후배가 아닌 '형수님'이었으니까. 그녀의 일그러진 표정

을 보지 못한 채 '야, 애 전드리면 우리 학교 가서 죽어'라며 킁킁거리던 이들은 '선배 애인'에 대한 대접으로 총회에서든, 과대에서도 그녀를 제화시켰다. "그래도 열심히 활동한 애가 됐잖아. 비굴할 건 없지 뭐..." 썩 웃던 그녀는 한 미디웃 보였다. '넌 과 CC잖은 거 하지 말지...'

1학년 시절 나는 선배들이 교학번 선배나 과대표의 애인에게 '형수님'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 보았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나는 다른 이름들도 갖고 싶었다. 나는 후배들에게는 좋은 선배이고 싶었고 그와 동시에 나름대로 활동 영역을 가진 '한사람'이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동기들, 선배 언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걸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연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지, 이상하게도 '과대의 여자 친구'인 선배는 사람들에게 남자친구의 안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먼저 받아야 했다. 누군가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이 나를 설명하는 전부 가 될 수 없다. 나는 그런 말들을 조금 더 적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마음껏 활동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생각을 하면 답답하기도 했다. 반면 남자 친구는 나보다 훨씬 적게 고민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물론 힘들었다. 하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피한다 해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고민해야 할 문제였으니까.

3. 나는 정말 선배일까?

그럼 나는 이제 선배가 된 것일까?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불안하다. 새내기들과는 또 다시 게임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그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기 위해 나는 다른 동기들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가끔은 귀찮다고 후배를 늘어놓기도 하겠지만 나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을 작정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또 재미있는 상상을 한다. '내가 남자 친구와 헤어진다면?' 이 글을 읽는 당신,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은가, 아니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가깝고도 먼 과방

짱가 (zzangaa@dreamwiz.com)

학생수첩은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쓸모가 있지. 과방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점일 뿐. 과방에 못갈 이유? 그런건 없어. 그저 어색한 것뿐이라구. 왜 어색해야하나? 낯선 새내기들 틈에 드문드문 보이는 아는 얼굴들은 반가운 적 인사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르겠어. 새내기들은 누군가하고 쳐다보는데, 사실 과에 안 나타나는 선배들은 어쩐지 대하는 모습에 어색함이 묻어있거든. 뽕품애야건, 오버에서 친한척야건 말이지.

1. 날 때부터 불량선배 아니었던가

과에 안 나타나다가 수첩 같은 거 받으러 과방에 나타나는 선배. 그런 선배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새내기 중에는 나도 있었어. 사실 OT나 세터를 거치면서 과방에 오는 선배들만 만나다 보면 그게 제일 당연한 거 같잖아. 3월이 되기 전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선배의 본분이라고 철칙같이 믿어버렸었지. 잘 오지 않는 선배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했었구. 여자 선배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역시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어.

2. 귀찮아지다

처음엔 술자리에 무지 열심히 따라다녔었어. 그 떠들썩함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았거든. 신촌이 내 세상인 거 같고. 근데 어느 날부터가 그 자리가 귀찮아졌어. 아니, 그 안에서 머리 굴리는 게. 선배 하나가 야, 술 좀 따라봐라 그러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불쾌한 거야. 학년이 꽤 높은 선배였는데. 뭐라고 받아칠까 고민하다가 그냥 술을 따왔어. 싫다고 말하면 싸가지 없는 것 같고. 어쉴튼 예교 부리면서 안 따른다고 하면 분위기는 안 썩지 몰라도, '귀여운 짓' 한다고 그럴 거 아냐. 그런 의도도 아닌데 말이지. 그렇게 고민하는 게 귀찮아지면서부터 술자리도 뜸하게 됐어. 귀찮아진



거야. 하지만 술자리에 출근부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자주 안가면 과 사람들이랑 더 멀어지는 거 같더라. 대학생활은 술자리 밖에 없는 걸지도 몰라 하는 생각도 들었단니까. 그래서 억지로 출근부에 도장찍듯 술자리에 나가보기도 했는데, 역시나 불편하더라구. 취하고 싶었던 날, 술 마신다 싶으면 옆에서 되도 않게 쟁겨주겠다 그러지 않나. 여전히 머리 굴릴 상황들도 생기고. 그래서 출근부에 도장 찍기를 멈춰서. 그러다가 누군가 오라고 불러서 그 술자리에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가면 다들 쟈 왜 왔을까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어색한 인사. "어, 오랜만이네. 요즘 뭐하고 지내?"

3. 선배 되기

하지만 아직은 과방에도 자주 들르고 그러저럭 지내던 어느날 새내기를 받게 됐지. 귀찮은 선배가 되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품었건만... 어쭙. 남자애들 땀에는 선배라고 품잡으면서, 뒤로는 이쁜 여자애 찾고. 이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게다가 선배 노릇 하는 거,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구. 결국은 또, 선후배 관계는 술자리가 전부였거든. 사실 선배라고는 남자선배 뿐이었으니. 내가 그 흥내낸다고 같아지는 건 아니었거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거. 알지? 동기녀석들은 선배 노릇 하느라 정신 없구. 가뜰이나 술자리는 꺼려하는데 가봐야 뵈전이고. 후배들이랑 별로 안 친하니 과방 들어서기도 어색하지. 동기라도 만나려고 과방에 가서는 문 가까이 서서 그 친구만 보고 나와야 하나. 과방 안쪽에 들어가 이야기하면서 후배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아야 하나... 난, 어디 서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처럼 됐나봐.

난 지금 약관 문방구에 가. 늘 학생수첩 나올 무렵마다 아는 고민, 드는 상념 따위는 다 접어두고. 수첩이야 그냥 예쁜 거 사면 되는 거지. 사실 그 남색 비닐 겹데기 학생 수첩이 뭐 그렇게 대단하대구.



〈수기들〉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나의 날개는 꺾인 것이 아니다
나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여자친구와 화해하기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그녀, 그리고...



여자친구와 화해하기

시타 (sita@jinbo.net)

델타페미니스트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 회원

어째서일까. 대학에 입학한 첫날부터, 나는 도무지 여자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중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 동기생들과 함께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그녀들 사이에서 오가는 가벼운 상견례조차 내겐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다. 누군가 내게 말을 걸었다. 안녕, 난 미경이라고 해. 어설픈 응수. 나는 졸업할 때까지 끝내 그녀와 친해지지 못했다. 우선 나는 그녀들의 대화 소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화장품 이야기, TV프로그램 이야기, 남자 연예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들과의 소소한 수다에 끼어들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릴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째서 저런 소재로 한두 시간씩이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걸까. 이해하기 싫었다. 그때 내 눈에 비친 그녀들은 지극히 깨지기 쉽고 불완전해 보였다. 그래서 대신 내가 몰두한 것은 남자 선배들과의 관계 맺기였다. 그들은 항상 사회에 대해, 모순에 대해, 혁명에 대해 이야기했고, 늦은 밤 술자리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고뇌 속에는 무언가 참된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그들의 고민은 여자 친구들의 고민보다 삶의 진실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 그들과 노는 것이 그녀들과 노는 것보다 더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나는 여고시절 3년 내내 붙어 다녔던 다섯 명의 단짝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싶어하고 있었다.

나는 자매가 아니라 형제였다. 형제애(fraternity)의 거대한 유리장벽이 곳곳에 놓여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제인 척 하는 편이 훨씬 남는 장사인 것 같았

다. 형제인 척 하기 위해서는 바꾸어야 할 것이 무척 많았다. 높은 구두보다는 운동화나 굽 없는 캐주얼화를, 레이스가 달려거나 얇고 실루엣이 드러나는 옷보다는 험렁한 푸른색 옷을 좋아하게 되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취향조차 바뀐다는 것은, 그분이 아니었다. 사회과학 세미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사무적이며 딱딱한 말투를 익힐 필요가 있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말투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중요성을 판단하곤 했다. 수십, 수백 번의 세미나를 거치고 나자, 나도 웬만큼은 남자 선배들의 말투를 흉내낼 수 있게 되었고, 어마, 따위의 감탄사는 무심코라도 뱉지 않게 되었다. 특히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는 건 중요했다. 끈끈한 인간적 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낮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결코 말해지지 않는 온갖 진심과 내막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으니까. 한번 바뀐 취향과 말투와 이런저런 생활 습성들은, 마치 원래부터 그러했다는 듯이 내 피부에 달라붙어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나는 여자 친구들과의 소원한 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된 외로움에 적응하게 되었다. 설명되지 않는 내 안의 그 무엇, 그것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형제가 아니라 형제인 척 하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 채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러니 얼마나 알맞고 답답해 보였겠는가. 형제인 척 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도 형제가 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여자라니! 돌이켜 보면 수많은 여자 친구들이 나에게 그 형언 못할 열받음을 말해 왔던 듯싶다. 연락 좀 하고 살라며 언제나 먼저 전화를 걸어 타박을 주던 여고시절 단짝 친구들, 어째서 너는 연애만 하면 여자 친구는 뒤통이나고 화를 내던 친구, 형제의



말투를 흉내낸 나의 말에 끝내 대답하지 않고 일어서던 동기녀석, 암흑 같은 외로움 속에 놓여 있을 때 불현듯 찾아와 말을 걸었던 여자 선배들, 니가 뭘 신경 쓰는지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자판기 커피를 내밀던 두 학번 위의 언니,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나에게 해태로 따위가 뭘, 이라며 신랄히 응수하고 종종히 사라진 그녀, 넌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던 그녀, 그녀, 그녀들...

며칠 전, 나는 '그녀'와 화해했다. 그녀는 남은 수첩을 뒤져 엊그제 전화를 걸어 온 어린 시절 동네 단짝 친구이다. 여고시절 3년 동안 화장실까지 함께 다녔던 6층사 친구들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 화장실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던 재수한 친구이다. 남자선배들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 못 봐주겠다며 뺨을 후려쳤던 여자 동기이다. 버스가 끊긴 나를 자취방에 재워주며 일기장의 한권을 보여주던 여자 선배이다. 밤늦게 돌아온다고 타박 주는 룸메이트이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들의 시선보다는 여자들의 시선이 더 무겁고 두렵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나 자신이다. 나와 싸워준 나의 여자 친구들, 형제의 가면을 불편하게 느껴도록 만들어 주어서 고마워.



웹진 언니네(www.unninet.co.kr)칼럼에 실렸던 글을 그대로 옮겨 담았습니다.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랑(yum11@dreamwiz.com)

I. 나도 떠나버릴까...

이런저런 이유로 슬그머니 과방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혹은 일찌감치 마음을 못붙이고 떠나 버린 것이든, 과방을 가도 술자리를 가도 또 신입생을 맞는 행사를 가도 여자 선배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마치 피라미드처럼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자 선배들의 수는 줄어들어 버린다. 사실은, 나도 떠나버리고픈 적 많았다.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보기 싫은 꼴 보지 않고, 하고픈 말 참지 않아도 되는 '여남'을 택하고 싶은 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 왜 난 아직 남아있는 걸까... 난 동거들끼리의 술자리에서도 소위 '홍일점'이 되는 때가 더 많고, 신입생 수련회엔 어느새 동기도 선배도 없이 유일하게 '여자 최고 학번'이 되어 있다. 난 아직도 '남아있음'을 버리지 못한다.

내가 일찌감치 떠나버리지 못한 것은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가 아닌 곳에서 내 자리를 만들 자신이 없었던 탓이기도 하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떠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어떻게든 이 곳에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걸로, 싫든 좋든 이 공간에 '백'을 물어야 하는 걸로만 알았다.

II. 뭐가 그렇게도 외롭고 그리웠다면...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로 찢찢대던 남자 선배들, 알아듣고도 같이 웃기보다는 웃들은 척 해야했던 이야기들, 술자리에서 내 동기들에게 충주길 강요했던 어떤 선배의 생일파티,



어느 달 과방에서 '여성스럽지 않은' 나의 모습을 허접한 농담거리로 삼던 이들,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면서도 화낼 상황인지 아닌지를 더 고민하면서 보냈던 시간들... 그때 나는 나 대신 화를 내 주고 그 '좋은 분위기'를 깨버릴, 그리고 자신은 어떤 더러운 꼴을 보며 살아왔는지 함께 신나게 수다 떨 수 있는, '언니'가 그리웠다. 이 더러

운 세상을 바꾸려고 멀리 세미나실에서 토론하고 있거나 집회에 나가 뛰고 있는 여자선배보다, 과방에서 술자리에서 나와 함께 있어주는 '언니'가 더 절실했다.

그 때마다 나는 다짐했다. 나는 많은 시간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보냈지만 적어도 내 후배들은 그렇지 않게 하겠다고. 나만은 이 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내 자리를 만들어 그들 곁에 남겠다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때, 삶이 무로해지고 긴장이 사라졌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수줍은 고백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언니'가 되겠다고.

III. 남아있어서 얻은 것은..

내가 처음으로 선배가 되던 해 3월, 날 밝게 웃으며 먼저 장난을 걸어오던 후배가 그 날 따라 우울하고 심각했다. 현장을 망설이다 어렵게 꺼낸 이야기. 한 선배가 지나치게 자기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친한 척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역겹다고 했다. 낯설지 않은 상황에 낯설지 않은 이름, 일년 전 바로 그 선배의 스킨십 때문에 나도 꽤나 오랜 시간을 고민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후배는 내게 털어놓고, 나와 함께 분노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함께 고민함으로써 적어도 나만큼 오랜 시간을 아파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분명 나는 그 애를 들어주고, 같이 화내고, 같이 욕하고, 내 지난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쓸모있었는지

아직도 자신할 수가 없다. 그 때 내가 해 줬던 말은 기껏해야 '무시해버려라... 차갑게 대해라... 피해버려라...' 같은 소극적인 것뿐이었다. 나 역시 그 남자 선배의 후배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고민하던 '선배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자기 입장을 전달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적어도 내가 그 선배와 동기여서 크게 눈치볼 것이 없는 상황이었더라면 좀 더 나았을 지도 모른다. 그때도 나는 언니가 필요했다. 그 아이가 날 여자 선배로 믿고 찾아왔듯이 나 역시 SOS를 칠 선배가 절실했던 거다.

IV. 짝사랑은 이제 그만.

선배, 특히 '언니' 이고 싶은 나의 마음이 후배들에게 잘 전해지고 있는지 솔직히 자신은 없다. 곁에 없는 여자 선배들을 오랜 시간 짝사랑했듯이, 지금도 마음으로만 멀리서 후배들을 생각하고 짝사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든든한 여자 선배'로 인정하고 찾아왔을 때 얼마나 든든하게 밀어줄 수 있을 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 아직도 나는 화내야 할 순간을 그냥 놓쳐버리고, 차갑게 비웃어야 할 순간에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보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되뇌었던 예전의 나를 그대로 담아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걸으면 웃지만 속으론 아파하며 어딘가에서 혼자 우는 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누군가의 마음과 "나도 때론 '언니'이고 싶다"는 나의 마음이 서로를 못 알아보는 일이 없었으면, 그래서 오랜 시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 곳에 '남음'을 택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전혀 헛되고 무의미한 것은 아닐테니까. 그러니까 애들아, 날 찾아와~

그, 그녀, 그리고...

이름(i10zzung@dreamwiz.com)

1.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다.

내겐 가끔씩 목 차서 두덜대거나 울면서 쉬고 가는 여자친구들이 몇 있다. 그녀는 그런 친구들 중 하나였다. 그녀는 오래 전에 어떤 연애를 했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넌 왜 그렇게 성에 대해서 억압적이고 보수적이지? 혼전순결을 지키라는 말은 우습다면서 왜 그러는 거지? 그런 거 무슨 아냐? 이걸 자연스러운 거란 말야.'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런 자신이 우스웠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녀에게 그러한 느낌은 무척 끔찍했을 것이다. 그에게 별 감흥이 없었음에도 어떻게든 해볼까 시도도 해봤다. 그렇지만 쉽지 않았다. 남자친구와 그 문제로 싸운 뒤에 그녀는 며칠씩 나쁜 꿈을 꾸며 시달리곤 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혼자 혼란스러워했고, 혼자 지쳤다.

그 얘기를 내게 했을 때, 꽤 지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궁금해졌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성의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배한 관심을 보였으면서 그녀가 어떻게 피로웠는지에 대해서는 왜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그는 사실, 그녀와 섹스를 하고 싶었을 뿐, 그녀의 생각과 감정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았다. 다행히 그녀는 그와 억지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 시간이 좀 더 지나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스스로 결정한 후에 그녀는 기쁘게 성관계를 받아들였다.

2. 그녀는 남자친구가 많다.

남자동기들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게 여자같지 않아서 편하다고들 한다. 그래서 그런 건지, 다른 인맥이 많아질지, 이놈저놈 다 그녀의 친구들이다. 생각해 보면, 그녀에게는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훨씬 많다. 나는 그녀의 위치를 부러워하곤 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이 되려고

나름대로 몇 가지 시도들을 했지만, 끝내 그들 밖의 사람이었다. 언젠가 그녀가 후배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게 그것밖에 안되니?' 라고 야단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얼마 전, 드물게 그녀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 둘 다 얼큰하게 술이 들었을 무렵, 나는 좀 까놓고 얘기하고 싶어졌다. '너는 그 자리가 편하니? 혼자 여자로 남아있는 게 어렵지 않니?' 술김에 약간 횡설수설하면서, 그녀는 동아리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혼자 여자선배로 남아있는 건 외롭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더욱더 여자선배로 남고 싶고, 여자후배를 챙겨주고 싶다고, 더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돌아보면, 그녀는 언제나 혼자 여자선배였다. 그녀의 남자친구들은, 그 많은 남자친구들은 왜 그녀의 이런 얘기를 들어주지 못한 것일까? 왜 그녀 혼자 어렵고 힘들도록 내버려 둔 것일까?

3. 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와 나는 언제나 신촌역까지 걸어갔다. 딱 거기까지. 나는 지하철을 탔고, 그는 마을버스를 탔다. 안녕, 내일 봐. 여느 날처럼, 그와 나는 신촌역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가 내게 물었다. 데려다 줘? 됐어. 정말? 정말. 그는 잠시 멈췄다. 그는 마음에 걸리는 말을 재빨리 내뱉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우물쭈물 말했다. 내가 됐다고 할 때는, 그





당 가도 되는지, 네가 뭘 바라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잠시 멈췄다. 난, 그가 데려다 주려는 게 좋았지만, 데려다 줄 이유란 아무래도 없었다. 무엇보다 만남의 형식이 그렇게 익숙해질까 봐 조심스러웠다. 나는 대답했다. 때마다 달라. 어떤 때는 내가 뿌리쳐도 네가 따라왔을 좋겠고,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 어쨌든, 내가 데려다 주길 바래도 네가 알 그랬으면 좋겠어. 겁이 나. 그는 내 감정을 이해했고, 지금까지 나는 혼자 겁에 간다.

이 '사건'은 그와 친해진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었다. 별로 어렵지도 길지도 않은 대화였는데, 그 작은 합의를 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그와 나는 서로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 내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는 대부분 듣는 역할이다. 나 역시 그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무엇을 헛갈리는지 잘 알지 못한다. 나랑 가장 친한 남성인 그와 그러한데, 다른 남성들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나는 때때로 막막해진다.

4. 그와 그녀, 친구가 된다.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나는 가끔,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너무 멀어보이고 서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시시콜콜해서, 내 여자 친구들이 그러했듯, 졸 수도 싶어질 때가 있다. 마음이 급하게 메말라서 친친히 나를 보여

줄 여유가 없는 날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요즘 들어 친구 하나가 자신이 페미니스트라는 생각을 버렸다. 고무적인 일이다. 예전에 기생동등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일컫던 그 친구는 남성으로서 여성들의 삶을 새롭게 접하는 게 아직 당혹스러운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그는 자신이 그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과 그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그가 여성의 경험을 더 제대로 몸에 익히길 바란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말이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른다는 것은 남성에선 꽤 안타까운 일이고, 여성 자신에게는 종종 폭력적인 일이 된다. 때로는 무지도 죄가 된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졌다. 다행이다.

그들과 그녀들은, 서로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는 내가 느끼는 문제들을 전장할 필요도 없이 내 남자친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다. 격렬하게 목소리 높여가며 피터지게 싸워보고도 싶다. 그것은 친구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연세에 여성을許하라

평가(zzangaa@dreamwiz.com)/본지 편집위원

1. 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미약하리라

나 대학 3학년 여학우다. 오늘 동문 모임 있어 나왔다. 99학번이다.

96 학번. "아- 할매 왜 나오나?"

왜 그런거지? 남자들 군대 갔다오는 건 알겠는데, 남자 96학번이 이쁜 여자 후배 챙기는 건 당연하고 여자 99학번이 챙기는 건 할매소리 들어야 하는거지? 1학년은 완전 1빠하고 2학년은 2선으로 물러났다 하고 3학년은 할매, 4학년은 신승장 한마디루 좀 비..?

나우누리 유머게시판에서 피음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 많은 여자 새내기들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과방에 모여 남자선배에게 밥을 얻어먹는 여자새내기의 수는 여전한데 말이다. 매해 비슷하게 여자새내기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녀들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탓일까? 단체로 대인기 퍼중에 걸린 것일까? 입학식날 논지방에 모여앉아 조금씩 사라지기로 결의라도 한 걸까? 그런 게 아니라면, 결국엔 그녀의 밖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그녀들을 이 곳에서 밀어냈는지 분명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2. 우리집에 왜 왔니...

물론, 대학에도 여성들은 있다. 그녀들은 자랑스러운 '연세인'이며, '이만 연세'의 작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녀들은 어색하게 '마초맨'을 부르는 연세인이며, 조심스레 술잔을 받아들며 고민하는 새내기이며, 익숙하지 않은 말투의 향연 속에서 주눅들어 있는 학회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들의 자리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초맨' 노래 소리에 들쭉이는 채육관에

도, 여기저기서 '원샷'을 외치는 술자리에, 명료하고 논리적인 말들이 넘쳐나는 세미나



는 남자 선배들의 '전략적'인 여자 새내기 챙김은 그러한 기준에 의해 행해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그녀들은 없다. 4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을 그 공간에서 보내지만 그렇게 지내다 떠날 따름이다. 그녀들이 떠난 자리에 그 흔적은 남지 않는다. 그녀들은 대학사회에서 그저 있을 뿐,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하다.

완전히 그 안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바깥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 대학 사회의 여성들은 이방인이다. 그리고 그녀들이 그렇게 애매한 위치에 머물다 사라지는 그곳에, 그녀들의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기쁨, 여러 가지 바람들은 그저 스쳐지날 뿐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그곳에는 여성을 바라본 남성의 경험이 있을 뿐이다. 여성을 평가하고 구분하는 기준은 남성의 것이다. 여자 후배를 많이 남기겠다

김의 거품이 거두어진 후, 그 기준들 속에서 소외된 여자 현내기들은 새내기도, 선배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여성은 기댈 수 있는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예쁘고 깔끔한 동생이 될 수도 있지만, 선배가 될 순 없다.¹⁾

'선배'라는 위치는 이방인인 그녀들에게 손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다. 사람들은, 여성 스스로를 포함하여, 여성들에게 '선배'라는 위치를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누나! 우리도 다 생각이 있대구요." 이방인의 주체님은 충고에 대한 불쾌함을 얼굴 가득 드러내며 사사건건 토를 달던 후배들의 모습은 '후까시' 때면 시세였던 남자선배 (물론 그런 남자선배들의 충고라면 같은 내용이라도 분위기를 숙연하게 하는 감동을 제공한다)의 모습과 겹쳐서

1) 대학에서의 여성은 '예쁜/귀여운 동생'으로만 존재하는가? 대략히 우리의 민주적 인 대학사회에는 '여학우'라는 말도 있다. 여성을 학우, 동료, 동등한 입장에서 규정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 '여학우'라는 단어의 용례는 대충 이러하다. "이번 월드컵 때는 여학우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학우들이 많이 있어 분위기도 좋고." "여학우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여학우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십한 노력이라고 칭찬해주기에는 약간 부족한 구석이 있다. 왜 여성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 안에는 여성이 없는 것일까.

그녀들을 서글
프게 한다.

물론 궤에
'남아있는' 여



방인이 이 곳에
서 살아남기란
바늘구멍에 낙타
가 들어가기와도

자 선택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선택으로서 존
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녀들은 실제의 그녀와는 상관없이 미술
에로 인식된다. 그녀의 입에서 스스로가 여
자라는 운이 띄워지기가 무섭게 '와, 너도
그런 거 하나? 너 여자 아니잖아.' 라고 던
져지는 대답,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그 순간
에, 그녀는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말하는 것
이 당연한 즐거움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불명확한 불편함이지만, 앞으로 그런 '여성
으로서의 커밍아웃'이 불편함만 가져다 주
리라는 것, 한 가지는 확실하다.

간혹 궤가 된 그녀들도 궤에 남아있
는다. 눈에 띄게 궤에 열심이지 않아도 그
녀는 남자친구에 덧붙여져 인사이더가 된
다. 반대로 남자친구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궤에서 자주 놀던 그녀도 '궤대의 애인' 으
로만 인식된다. 그녀 역시 실제의 그녀와
상관없이 든든한 내조자로, '형수님' 으로
기억에 남는다.

결국, 남성이라는 전제를 가지지 않은 이

같은 일이다. 가끔씩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낙타도 있지만, 그런 위인들의 모습 역시 여
러 고민과 시행착오와 모험을 거친 후의 결
과이다.

3. 어떻게 새내기가 '여학우' 가 되는가

여성에 대한 상식, 성폭력에 대한 논쟁,
심지어 여성을 위한 배려까지도, 그 기준은
여성의 경험에 전혀 근거하고 있지 않다.
여성의 경험에 대한 해석은 남성들의 경험
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 이라
고 평가된다. 그 '일반적' 인 경험이라는 것
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진다. 그
경험의 주인이 아닌 여성의 경험조차 '여성
을 바라본 남성의 경험' 으로 대신되는 것이
다. 한 번도 말하여지지 않은 경험에 대해
서 판단하기란 그 경험자 자신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경험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불편해 한다. 순간순간 찾아드는 불

편한 감정과 석연치 않
은 느낌들은 그 정체를
알 수 없어 더욱 혼란
스럽다. 어렵듯이, 그

불편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그 불편함은 논리적으로 설명되기
힘들다. 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 경
험은 드러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또다시 묻
혀진다. 애초에 남성 중심적으로 짜여있던
구조들 속에 끼여있던 그녀들은 그 안에서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고 이해 받을 수 있는
소통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
들 중 많은 수는 그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
고자 그 공간에서 떠나기도 한다. 그렇게
'여학우' 들은 사라져 간다.

여성의 경험이 온당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스스로를 소외
시키고 있다. 한편 주류로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학우' 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어
차피 그녀들은 이방인이요 이방인들의 경
험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주인에게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아니 주
류로서의 종격을 유지하
기 위해서 오히려 모르
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그 그자리에 늘 머물러 왔던 주인들은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라.

4.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했던 온당한 평가들에 대한 기억을 그녀
들은 가지고 있다.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것
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대신 행해주는 남
성들에 대한 불편한 기억을 그녀들은 가지
고 있다. 그 모든 기억들이 과거의 것이 되
기를 그녀들은 바란다.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공간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드 사
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모
습을 재단할 남성들의 시선에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녀들은 아직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대상이 아닌 이방인

2) 농담이나 헛소리도 기증에 걸리는 일은 나름대로 처벌된다. 어쨌든 그런 일을 듣고 주인으로서의 종격을 유지하였는가.
그런 '일' 에의 의지가 그들에게 생김 때는 오직 연애, 연애할 때 뿐이다.

들이다. 그녀들의 경험을 복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인 소통이다. 불편함을 말하는



히 뛰쳐나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그녀들이 있음을, 그녀들이 당당

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방인이 아니라 주인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 그리하여

함께 부대끼며 사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것. 이런 작은 시작들은 그녀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닐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진부한 얘기다. 모범답안을 옮겨놓은 듯한, 원칙적인 이야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학이라는 곳은 그 진부함조차 마치 커다란 변화라도 일어난 것인양 받아들이게 만드는, 묘하게 뒤틀어진 공간이 아니었던가. 이 진부함 끝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즐거운 덧붙임이 있기를 전심으로 바란다. 그 즐거운 덧붙임이 이 이상한 나라에서의 오랜 줄타기의 끝에 될 수 있기를, 어정쩡한 자리에 앉아 흘리는 쓸쓸한 미소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박지연**

별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과안에서 갈굼과 논리를 적절히 조화시켜 '남학우'들의 근거없는 생각들을 까발려주고 가볍게 반군을 규합해 반란을 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학우에 대한 알량한 배려로 자신의 '벗집'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오버액션'을 보이코트 할 수도 있다. 오버 액션에 대해 허무게그로 대응을 해준다면, 그 오버가 민망해지지 않을까. 아예 무시할 수도 있고 말이다. 과를 가볍게 뛰쳐나와 새살림을 꾸릴 수도 있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찾아낼 수도 있다.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라면 바뀔나가기 더 쉬울 수 있다. 근거 없는 '결속력'에 의지하는 공간보다는 훨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

그녀들에게 규정된 역할들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그 바깥으로 과감



포랑의 황당 but 화통 낭담 코우너~

우연히 술자리에서 옆테이블 남자 선배들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올해는 물이 좋다느니, 누가 짭 예쁘다느니, 누구는 이름만 예쁘다느니.... 혹시 선배들이 우리를 갖고 점수를 매기거나 않는지 괜히 신경 쓰여요.

-방금 그 질문, 벌점 100점! 순위 떨어집니다.

개강파티 2차로 다 같이 노래방엘 갔거든요. 한 선배가 여자 새내기들만 있던 우리방에 와서는 '야, 저쪽 방은 남자밖에 없어. 분위기 너무 험악해.' 하면서 애들을 멧명 데리고 갔어요. 판매들은 안그런 것 같은데, 전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내가 분위기 띄우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섞여서 앉자'는 건 두루두루 다 친해지자는 뜻으로 좋게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건 옆에 여자 끼고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총영티 갔다오는 차 안에서 피곤해서 졸고 있었어요. 그 때 옆에 있던 남자 선배가 마사지해 준다면서 어깨랑 팔을 주물러줬는데, 사실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징그럽기도 하고 뭔가 찝찝하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다음부터 '주물럭거리지 말고 두드려달라'고 하세요.

심은 선배가 자꾸 밥 사준다고 불러내요. 저는 같이 다니는 애들 있어서 늘 개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아예 주말에 따로 만나자는 거예요. 과외비 타서 쏘는 거라는데, 그리고 3월엔 선배가 후배 밥 사주는 게 당연하다는데 전 정말 들어서만 만나기 싫거든요. 그래도 싫은 티 내지 말고 그냥 얻어먹어야 하나요?

-계좌번호 가르쳐주고 현금으로 넣으라고 해요.

박지연

알아서 남주자!

*이번 주말, 비도나 한판?!



안토니아스 라인

-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영화! 영화가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영화만큼 여성주의적 유토피아를 잘 그려낸 영화는 없는 것 같다.

영화는 제목 그대로 안토니아라는 여자의 가족사 이야기로 안토니아로부터 그녀의 선조까지 모계만으로 이어지는 가족을 그린 영화이다. 남성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인생과 가족을 선택한 그녀들은 위계적이지 않으면서 조화로운 그녀들만의 공간을 만든다. 이제까지 남성 중심 가족의 그림에만 익숙한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영화인 동시에 가족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다. 비현실적 이상향을 그렸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여성으로 살아가기 불편한 세상에서 가끔은 신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파니 핑크

영화는 공개구출 비디오를 찍는 파니의 모습에서 시작된다. 주인공 파니는 30살을 넘긴 공황아직인, 사실 기도자 모임에 참석하고 있기도 한 파니는 파란색 일상과 옷차림에 자처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이사는 장성술사 오르페오에게 자신의 정리를 부탁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영화는 한 여성이 사랑을 찾고 또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사랑이 있어야만 여자는 행복하다'는 식으로 유폐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란 그녀가 삶의 활력을 찾기 위



한 노력의 일환이며, 그녀는 사랑에 있어서도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애쓴다. 독일에서 사는 흑인 게이 오르페오와 파니 사이가 만들어낸 끈끈한 우정(아니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다.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해 가슴으로 돌아오는 영화.

그리고 에드트 베아프의 상송 'je ne regrette rien'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는 좌충우돌하며 아픈 게 상쾌해 가는 파니의 모습을, 그 어떤 애인사보다 다정한 파니와 오르페오의 춤을 두고두고 상기시킬 것이다.

에로피코

이 영화는 각각 미국과 독일, 홍콩의 여성감독들이 만든 3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졌다. 이 영화는 내가 유



일하게 직접 발로본 에로영화이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가 보아온 에로 혹은 포르노 영화 중 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었다. 물론 여기서의 뛰어난 은 보면서 무지 에로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비판하면서 잘못된 성문화를 부추린다고 한다. 잘못된 성문화와 아름다운 성문화의 차

이가 될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나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지만, 포르노의 시선이 남성관객들을 위하여 여성의 몸을 훑고 있을 역시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꽤 아름다운 거품에 젖어 영화를 보다가도, 어느 순간, 나 스스로를 남성주인공에만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뒀다 그것이 내 몸, 내 욕망에 맞지 않음을 감지할 때가 있다. 그때부터 난 이런 영화가 지루해진다. 이 영화는 보는 내내 에로틱했고 즐거웠고 호뭇했다. 반대로, 영화가 상영되던 당시 제목에 혹해 들어온 몇 여자들로는 '아쭈구리, 이게 뭐야?' 라고 투덜거렸다고 한다. (솔직히 약간 통쾌하다.) 발릴 때의 색소극을 감수해야겠지만 그 정도가 차는 있는 영화다. 쓰다보니 다시 보고 싶어진다. 후딱 글쓰고 발로봐야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룻밤

없어없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제목과는 달리 굉장히 건조한 영화다. (MBC에서 '청춘송가'라는 제목으로 건조한 제목으로 방영된 바 있으며 원래는 'Dogfight' 이다) 군비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는, 애국심으로

뒤편 뒤편 영웅적인 군인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셨던 분들이나 뻔한 로맨스에 식상한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특히 두 일곱 3호 군대와 시나이 에 감동을 받은 보이려면 고개를 주억거리며 불온한 영화. 청춘남녀의 이야기들이 늘 뻔하지 않은 남의 의 형상에 뻔하지도 않은 채 처분하게 할 말 다 하는 성숙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



*클릭, 클릭

웹진 언니네 (www.unninet.co.kr)

내가 언니네에 가는 이유? 어떤 댄 조용히 쉬고 싶어서... 또 어떤 댄 up되고 싶어서!! 그렇게 언니네 열 갈 때마다 내공을 듬뿍 쌓아 오게 되지. 지지. 알은 출세할까.

먼저 언니네 '광장'으로 가서 이벤트 특집이 있는지 어떤 칼럼이 실렸는지 어떤 언니를 인터뷰 했는지 확인하고. 다음엔 '동네' 한바퀴 휘와 돌아볼까나. 먼저 불기마 켜 쭉방 가서 수다 좀 떨다가. 오빠네 세탁소에 둘러 인사도 하고. 동급 외 전영관 둘러 가동작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저씨네 가서 알 좀 내다 가. Feminary에 둘러 책도 빌려와 하고. 혁혁... 그 다음엔 언니네 추천받아서 만화책도 한 권 비디오도 하나씩 빌려와지. 아차차. 음악도 좀 들어와지. 어. 그러고보니 미술관도 새로 운영했네. 음. 드라마에 기도 좀 쭉알다가. 모뎀이 책방에선 자판에 본 책 애기도 좀 해와하고. 음. 오기 전에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 잘 만나 인사도 하고. 어. 벌써 해가 지네.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보나스! 요즘 언니네에서 1주년 기념 이벤트를 하던데... 이 기회에 언니네에 둘러서 쿠키도 받고, 1주년 축하도 하고. 행복한 상품도 타보자구~

13대 총여학생회 별/수/있다! (www.ysfem.or.kr)

뭐 재미난 웹진도 많고 좋은 사이트도 많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학교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부터 알아보자지 않을까? 13대 총여학생회 별/수/있다! 해내 홈페이지는 정말 '별 수 있는' 캠퍼스라고 할까

한 디자인이 돋보이기도 한다. 방송가를 잠시하면 '총여 ing'에서는 양양~청청하게 돌아가는 총여의 활동현황을 체크할 수 있다. 여자가 살기 좋은 연세를 위해 바라는 것을 말하는

'what women want'와 맘껏 지랄할 수 있는 공간 '욕지랄'도 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따끈따끈한 화장실 신문 내용들도 확인 할 수 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여자의 방'에서는 여성들끼리의 은밀한 수다를 즐길 수 있다. 사이트를 찾는 연세여성의 작은 관심과 질책들이 연세라는 공간을 여성들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지 않을까?



*여기 한번 가볼까?

서울 여성영화제

내가 서울여성영화제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99년도에 여성학 관련 수업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였다. 따뜻한 봄햇살이 내리쬐는 대학로에서... 여성영화제에 대한 나의 느낌 역시 봄햇살 만큼이나 밝았다. 여성의 삶을 고민하는 영화들이 이렇게 많구나. 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것은 마치 친구



를 얻은 것 마냥 든든한 기분이었다. 이처럼 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따끈한 여성주의 영화를 한판도 애나 여러 판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서울여성영화제의 최고의 장점이다.

(여성문화예술기획)이 기획, 주최하는 서울 여성영화제는 97(1회), 99년 (2회)에 이어, 오는 2001년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금

까지 한국 단편 경선을 통해 우수한 여성영화인력 양성고 여성주의 영화제작 지원에 힘써 왔으며, 이번 3회에서는 아시아단편 경선으로 영상산업에 있어서 탈식민지적 여성주체의 형성과 연대를 도모한다고 한다. 상영관수도 더욱 많아지고, 상영관도 2개관으로 확대되었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과 하이파텍이다. 상영표 및 자세한 문은 홈페이지로. www.wffs.co.kr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

언젠가, 호칭과 욕심의 차이가 궁금한 적이 있었다. 그 둘은 어디에서 나누는 걸까? 그때 새삼스럽게 이니티아니티라는 한자를 소개받은 답답한 단어를 접한 적이 있었으니 바로 나의 연니이다. '너 지금 그 걸 질문이라고 하니는 표정으로 그는 말했다. '아아, 니가 에니티라고 하면 호칭이지만, 미스코리아가 되고요 하면 욕심이다.' 아.. 호칭과 욕심의 차이는 가능성의 유무였구나.

시간이 좀 지난 지금엔 호칭과 욕심에 대해 다르게 생각을 정리하긴 했지만, 에니티질 순 있어도 미스코리아가 될 순 없지는 연니의 그 말은 기억에 남는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미스코리아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나의 몸이 에니티/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왜 심사위원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일까? 올해도 어김없이 미의 제전이 흐드러지게 벌어지고, 전국의 남성들은 누가누가 진이 될지 못내 궁금해할 것이다.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도 어김없이 열리지 않을 바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은 미스코리아 대회에 반대하는 여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



노래, 연극 등을 직접 보여주는데, 그로써 여성들의 유쾌한 한 판 잔치가 된다.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이 대박을 터뜨려 여성을 얼굴, 가슴, 다리로 나누어 재보고 돌아보는 자명한 것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란다.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

페미니스트 카페라고 품질을 필요도 감각을 필요도 없다. 고마는 조용하고 아담한 찻집이다. 벽 한켠에 여성학 관련서적들이 있어서 책을 보기도 좋고, 친구들과랑 도란도란 얘기하기도 좋다. 아, 이곳에선



지난 달 25일까지 여성주의의 일상과 삶, 몸에 대한 성찰이 담긴 판화들을 선보이는 '영경 날 전'이라는 전시도 있었다. 거, 지요였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엔 약올리는 듯했지만, 언제 좋은 형사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축구를 권두세유라는 당부의 말씀.

이 곳에서 특히 맛있는 것은 다방커피, 카페오레와 비슷한 맛이

라고 하면 도려나? 우아한 우유방수도 걸작이다. 과일의 싱그러움에 우유와 연유의 조화가 한상의 맛을 만들어낸다. 팔이 필요한 사람은 주문할 때 미리 얘기할 것. 위트는 신촌기차역에서 이따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마 카페는 눈 에 뜨는 판이 아니니까 열심히 두리번두리번가야 한다. 찻집찾으셨으면 02)364-6960

페미니리

지금은 논지당으로 아기를 했디지? 예전에 제2 인문관 여성연구소와 함께 방을 쓰고 있어서 오며가며 페미니리의 문패를 볼 수 있었다. 지나칠 때마다 페미니리가 뭐지? 뭐하는 곳이지?? 궁금해하다가 친구의 코드감(?)으로 페미니리 지렁이를 하게 되었다. 한학기 동안 지렁이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시간은 페미니리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내가 있는 한 시간 동안 아무도 안을 때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가끔은 여성학 수업이나 기타 수업 때 필요한 자료들을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순수한 학문적 열정으로 오는 사람도 있었으며, 친구끼리 뽕뽕히 논치며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페미니리는 전~혀 논치보면서, 조심조심, 싹싹기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아니다! 여성학 책이 어떤 게 있나 궁금할 때, 아님 새로 나온 자료는 여성학 책 뭐 없나 알고 싶을 때, 아님 레포트 명예 여성학 자료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단, 점심시간 빼고) 페미니리로 들어가서 직접 책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지렁이에게 '성폭력 관련 자료 있나요?' 하면서 찾아들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자, 아직까지 페미니리의 실체가 궁금하신 분들, 여여 논지당으로 출발~

제3회 월경축제를 함께 기획할 여성주의자들을 모집합니다!

지난 99년부터 월경축제를 기획해 온 여성문화기획 불턱에서 제3회 월경축제를 함께 기획할 기획단 여러분을 공개 모집합니다. 월경축제 기획단은 월경과 여성으로서 자신의 경험 등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사 기획까지 매주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정기회의 및 비정기회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과감히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상: 새로운 대안 문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서울 근교에 주거하는 대학인 여성
모집 기간 및 방법: 3월 31일까지 bultuck@netian.com으로 e-mail 접수 후 개별 연락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과 기획단을 지원하고픈 분들은 홈페이지 <http://www.menses.org> 를 참고해주세요

"나, 이번에 두입술 들어갔어요."

두입술, 두입술, 두입술.

나는 이 '두입술'이라는 말을 할 때 은근히 의기양양해진다. 괜히 온자 으쓱해한다.
사실 어디가서 "두입술 있는 포랑이에요."라고 말하면서도 참 많이 죄(?)스럽긴 하다.
나.. 두입술을 등에 업고 있는 걸 넘어, 두입술을 등쳐먹고 있는 건 아니겠지?? ^^;;
그래도 난 후배들에게 오늘도 뽀뽀스레 말한다.

"나, 두입술이야."

-포랑-

두개비는 없다.

병에 담긴 연로 두개비도, 밑 빠진 독을 막아줄 구세주 두개비도 내겐 없었다.

지금 너무도 두개비가 절실하다.

두개비와 두입술의 공통점은 '두'자로 시작한다는 거다.

그리고 둘 다 내게는 나름대로 절실하다는 거다.

빨리 그 둘을 모두 만나게 되길 바란다.

-짱가-

아아 그리하여 이 시대 나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나

아직도 새로 시작할 임이 있는데

성한 두 팔로 가끔은 널 안을 수 있는데

너에게로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최영마님의 '너에게로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중.

-마나쁜금이음 열풍-

말을 잃어버렸던 시간, 그래서 더 많이 말했던 시간이다.

일상 속에서 즐겁게, 끊임없이 두입술을 열고 쉽다.

자갈치 시장 같이 시끌벅적했던 마릿속을 잠재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진짜 자갈치 시장의 오뎅이 그렇게 맛나는데, 두입술 식구들과 '오뎅여왕'이나 떠날까?

즐거운 여행을 쓸 수 있으리라... 우리 행복하려고 두입술을 만든다!!

-2gal-

어무리 일이 고되고 산더미로 밀려더라도...

상황을 고민하되 사람을 탓하지 않을 수 있는 착한 마음씨가 필요함을 느꼈다. 어쩌면 순간 순간의 참을성으로도 족할 것이다. 어쩌면 오해를 기다리는 법부터 배워야한다. 우리는 두입술을 통해 독자에게 말을 걸고자 했지만, 우리는 편집기간동안 서로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지 못했다. 매말라 가는 작업이 싫었다.

나의 수첩 한 페이지에는 편집 끝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이 빼곡이 적여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야지. 좀만 더 힘을....

-돌가-

두입술

2001. 봄 · 5호

●만문어 : 김아정민(산문방송99)
박 유 미(안문학부98)
양송혜진(유학어문98)
이한자은(기계전자98)
권박효원(사회복지97)

●편집어 : 권박효원

●편집곳 : 두입술 편집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134 연세대학교 (120-749)
전화 / 017-280-4830 (편집장)

통신ID / 두입술(나우누리), twolips(참세상)

통신방 / go twolips (참세상)

통신동호회/두입술(<http://ciub.dreamwiz.com/twolips>)

●발행곳 : 뿌리기학(2263-2311)

●발행일 : 2000년 3월

●후 원 : 연세대학교 제12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제37대 총학생회 예산 자치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뿌리기학 여러분들과
안녕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힙합공동체

I WILL

Willer

www.freechal.com/IWILL

여성주의 Hip-Hop 공동체 'I WILL'

I WILL은 여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억압적인
시선들에 대한 반기를 춤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춤
추는 여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정기적인 연습과 공연활동을 하고 있스
며 이와 더불어 Hip-Hop과 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
다. 여성이라면, 춤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I WILLER가
될 충분한 자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I WILL」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
니다. I WILLER와 함께 당신의 몸을 해방시켜 보세요.....^^

(<http://www.freechal.com/iwill>)